

# 강진군 손모내기기로 전통농업 되살린다

### 농업유산 주민협의체 재연행사 연방죽 생태수로 보전 위해 설립 '가래치기' 등 전통 유산 계승

강진군이 손모내기 재연행사로 전통농업의 명맥을 잇는 문화유산 계승 사업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강진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주민협의체는 지난 23일 병영면 박동리 일원에서 손모내기 재연행사를 개최하고 풍년 농사를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의체 회원과 민·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2시간 동안 약 300㎡의 논에 못줄을 따고 모를 심었다.

또 모내기를 하며 지역 농요인 '모심기 노래'도 함께 불러 사라져가는 전통농업에 대한 명맥을 잇고 문화를 살리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강진군 농업유산 주민협의체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6호로 선정된 연방죽 생태순환수로농업시스템의 보전 및 계승을 위해 설립된 주민자치기구로, 겨울에는 병영·작천면의 연방죽에서 진행되는 고유의 '가래치기 행사'도 주최하고 있다.

주민협의체 송용백 회장은 "주민협의체는 앞으로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해 손모내기과 비수확을 함께 하는 농촌체험 학습활동을 계획하고, 겨울철 인근 연방죽에서 실시하는 가래치기 행사에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군 병영면 박동리에서 강진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주민협의체 회원들이 못줄에 맞춰 손모내기를 하고 있다.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수로는 전남 지역에서 두 번째로 넓은 평야의 부족한 농수로 확보를 위해 병영·작천면 농경지 곳곳에 연방죽을 축조해 물을 저장·보관하고 재사용해 농업환경을 극복한 전통관개 방식이다.

농업용수로 사용한 물은 다시 민가의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전라병영성의 군사용 해자로도 흘러보냈으며, 연방죽에서 키운 연과 물고기로 생계를 이었다.

연방죽 생태순환수로는 한정적인 수자원의 효

율성을 극대화 한 '물 나눔과 순환의 지혜'를 인정받아 2021년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세계관개시설물로 지정된 인류의 유산인 강진의 연방죽 생태순환수로는 단순한 농사방식을 떠나 유한한 물을 나누고 순환시킨 조상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손모내기와 가래치기 등을 통해 고유한 강진의 전통 유산을 면면히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나주시, 5급 대우 미래교육지원센터장 재공고

### 4월 채용공고 적격자 못 찾아

### 6월 1일까지 지원서 신청 접수

"5급 간부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미래교육지원센터장 모집입니다."

나주시가 민선8기 명품 교육도시 조성 비전 실현을 위해 교육 중간 지원 조직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미래교육지원센터' 센터장을 공개 채용한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 4월 센터장 채용공고 이후 지원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 심사를 진행했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해 24일 재공고를 냈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6월1일까지다.

나주시청 또는 나주교육진흥재단 누리집에 게시된 채용계획 공고문에서 응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나주교육진흥재단(나주시 남산길 23·나주시민회관 1층)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재단은 원서 접수 이후 서류전형, 면접을 통해 6월 중 최종합격자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응시 자격은 교육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6년 이상', '15년 이상 직무 분야 실무 경력',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부서장으로 2년 이상 근무 경력', '고용 휴직 교사로 특별 임용하는 경우 정교사로 7년 이상 근무 경력' 중 1개 항목 이상 해당 자격을 갖춘 자로 거주 지역과 나이 제한은 없다.

미래교육지원센터는 나주시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를 잇는 중간 협력·지원 조직으로 6월 중 나주교육진흥재단 내 독립형 기관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미래교육지원센터장은 관련분야 전국 유일의 5급(간부급) 대우를 받게된다. 센터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나주교육진흥재단 상임이사를 겸직한다.

센터는 지역 학생의 진로·적성 발굴, 학업 성상에 꼭 필요하지만 공교육 영역에서 다루지 못하는 교육 등 개인 차원에서 해결해왔던 교육 서비스를 지자체 차원에서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게 된다.

재단 이사장인 윤병태 나주시장은 "미래교육지원센터는 학교, 교육지원청,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미래 교육 수요를 지역 교육 자원과 연계해 미래형 인재 양성을 하는 중간 조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명품 교육도시 나주에 이바지할 역량과 해안을 갖춘 적임자 선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송영철 기자 yacson@

# 화순군, 5월 문화가 있는 날 다양한 문화 공연

### 31일 연극·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

화순군이 이달 마지막 주 수요일인 31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연극,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회랑 등 일대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힐링 음악회(화순읍편)'은 가수들의 공연은 물론, 주민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끼와 재주를 발휘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또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선 사막했던 가족애의 회복 과정을 그린 연극 '못생긴 당신' 공연으로, 5월 '가정의 달'에 맞춰 가족이 함께 웃고 웃는 추억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순읍 동구리 호수공원에서 '문화가 있는 날-화순의 봄' 음악 공연이 펼쳐진다. 장구 난타, 신민요, 대중가요, 에어로빅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이날의 모든 공연은 남녀노소 모두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061-379-3513)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맘껏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 28일 '숲속힐링음악회'

### 10월까지 10회 공연 열려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즐기는 '숲속힐링음악회'가 28일 막을 올린다.

올해 처음 여는 숲속힐링음악회는 하모니 퓨전 예술단이 주관해 전문 음악인과 지역 내 연주자들이 무대를 장식한다.

국악가요를 비롯해 하모니카 연주, 해금 합주, 클래식, 이색악기 연주까지 다양한 장르를 준비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5월 행사의 테마는 숲과 어울림이다. 우드랜드 내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음악회는 10월 말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장흥군은 음악회 외에도 편백나무 피톤치드를 활용한 산림치유, 숲해설 교육 등을 마련해 우드랜드를 찾는 관광객들이 숲의 건강한 기운을 전달할 계획이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담양군 경영상담실 운영

담양군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분기별로 '맞춤형 경영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첫 '중소기업 맞춤형 경영상담실'은 다음 달 예코농공단지 관리사무소 2층에서 열린다.

이곳에서는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경영지도사 3~4명이 무료 상담을 펼친다. 경영 전략과 마케팅, 재무(금융), 인사(노무) 등 10개 분야에 대한 상담이 이뤄진다. 상담 후에는 전문가와 연계한 심화 상담도 진행한다.

중소기업 경영상담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 누리집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담 희망기업은 담양군 투자경제과 기업지원팀(061-380-31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최근 원자재 가격과 공공요금 인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며 "상담실이 군과 기업 사이의 소통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



함평 나비대축제 이후에도 무료 개방하고 있는 함평엑스포공원 장미원에 꽃이 만발했다. <함평군 제공>

# 함평엑스포공원 국향대전 준비로 관람 제한

오는 10월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앞두고 축제가 열리는 함평엑스포공원 일부 전시관이 제한 운영된다.

함평군은 국향대전 준비를 위해 엑스포공원 일부 전시관 관람이 제한된다고 25일 밝혔다.

친환경농업관과 황금박쥐전시관은 축제 준비기간 휴관한다. 이외 다육식물관, 자연생태관, 수생식물관, 나비곤충생태관, VR체험장(월요일 휴관)은 연중 운영한다.

함평엑스포공원 장미원도 무료 관람할 수 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장미원에는 독일 장미 26종, 영국 장미 16종 등 대형색의 장미 7080주가 만발했다.

어린이 놀이터, 장포 연못 등 다양한 볼거리도 즐길 수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나비대축제 폐막 후에도 2주간 3만여 명의 관람객이 엑스포공원을 다녀갔다"며 "올가을 열리는 대한민국 국향대전에서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한국토지부동산(주)

## 전원주택 신축

##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 상담문의 010-3733-3933